

## [ 오피니언 ]

## 데스크 시각

김재열



철밥통이란 어원은 중국에서 비롯됐다. 직장에서 해고될 염려 없이 근무한다는 뜻에서 중국 국영기업체 직원들을 티에판완(鐵飯碗)이라 불렀다.

철밥통 하면 으레 공무원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도 올라간다.

공무원 신분보장제도는 부당한 간섭 없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무능 불성실 공무원들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파막이로 변질된 지 오래다.

## 공직사회에도 시장원리

'공무원 철밥통'보다 '교수 철밥통'이 더 단단하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교수 수 교수들이지만 일단 정년이 보장되면 잘 가르치지 않아도, 연구를 계획해도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권 예비주

자이기도 한 정운찬 교수가 서울대 총장 시절 "일주일에 하루만 대학에 나오는 교수가 있다"고 언론에 공개했을 정도다.

요즘은 공무원 사회의 최대 화두는 무능

## '철밥통' 중앙정부부터 깨라

공무원 퇴출이다. 울산시에서 시작된 무능력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인사제도가 전국 차지단체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인 차지단체는 전국 50여 곳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나주시가 부적격 공무원 20여명을 선정했고 고흥군과 곡성군 등이 도입을 선언했다.

공무원 퇴출제도의 확산은 그동안 개혁과 변화의 무풍지대였던 공직사회에도 시장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지방차지단체에만 국한된 체 중앙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참여정부 4년간 공무원 수는 4만8천명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가 4년 전보다 33% 늘어나 20조원에 육박했다. 장·차관 수는 건국 이래 가장 많고 무엇을 하든지 조차 불분명한 위원회 투성이이다. '작은 정부 큰 시장'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

'철밥통이든 금밥통이든 일만 잘하면 그

만'이라는 식이다.

공무원 수와 정부지출은 늘어났으나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했다. 200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에는 2005년 29위에서 38위로 추락했다. 일꾼을 더 쓰고도 소출은 오히려 줄어든 격이니 주인인 국민들의 마음이 편히 리 민무하다.

그럼에도 정부 조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도 재정경제부가 2개 과를 신설했고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도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비대해지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정부 팽창과 무관치 않다.

민간부문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 확대는 정부 지출 증대와 국민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자연히 정부의 시장 간섭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민간부문은 협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 작고 강한 정부 만들어야

큰 정부의 폐해는 로마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제국이 망한 이유 중의 하나로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많을 정도의 큰 정부를 꿈는 역사학자들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들이 공직사회는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되기 위해 몰두하는 '묻지마 공무원 시대'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 번영을 위해 정부 조직과 총장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참여정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작고 강한 정부' 만들기에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民)은 고피해가는데 관(官)만 살찌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2부장〉 aj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심상돈



시대가 변하면서 유행이 변하듯이 관심사도 많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발생하는 병의 부위도 점점 달라져간다. 바꿔 말하면 병의 발생 부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몸의 부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져 평소에 관심이 없던 부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곳이 어깨와 팔이다. 하지만 세상사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 초기의 관심은 조금씩 빗나가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어깨가 결리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가 어깨가 불안정성 그리고 석회성 건염에 의한 통증으로 어깨를 사용하지 않아서

으로 운동제한이 오고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

주로 5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오십견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오십견의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이다. 대부분 어깨관절의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긴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나 최근 40대는 물론이고 20, 30대에서도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인한 면역력 저하, 당뇨병, 간상선 기능 저하, 운동 부족으로 오십견 증상이 나타나 정확한 원인으로 말할 수 없다.

이것 보다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의 불안정성 그리고 석회성 건염에 의한 통증으로 어깨를 사용하지 않아서

기고

장치원



인간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배속 양수에서 인체조직이 형성되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처럼 물은 생명의 기원이며 인체조직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만 해도 산골짜기의 물을 마음놓고 마실 정도로 맑고 깨끗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1회용품 사용과 자동차의 급증으로 레저 생활이 늘어나면서 물과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물을 함부로 마실 수 없게 되고 지금에 와서는 물이 부족하

으로 전망된다.

인간의 삶 자체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 가정에서 쓰고 버리는 물과 공장폐수, 축산폐수, 논, 밭에서 농약과 함께 흘러나오는 물 등 많은 오염물질을 우리들 자신이 무관심하게 버리고 있으면서 자신이 마시는 물은 맑고 깨끗한 물을 찾는 우리의 본능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만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존하여 맑은 물과 환경 친화적인 자연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증

## 오십견의 진실

른 판단으로 접하기 쉬운 민간요법이나 비전문적인 운동요법으로 버티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요즈음 활동 열풍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운동을 즐기고 있으나 이로 인한 우리 몸 관절부위의 부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상당수가 방치하다 병을 키우고 있다. 어깨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오십견으로 알고 침,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으로 치료한 환자를 자세한 병력 청취 후 신체검사, 초음파, MRI 등으로 정확히 진단한 결과 순수한 오십견 환자는 20% 내외였으며 50% 이상이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군이었고, 10% 정도에서 석회성 건염, 나머지는 근막 동통증후군으로 불리자는 근육에 기인한 통증이었다.

오십견은 단순 방사선 활용검사로는 판명되지 않으며, 어깨의 통증과 강직

어깨가 굳어버리는 이차적인 오십견이 더 많다. 단순한 오십견은 약물치료, 물리치료(온열치료), 환자의 증상에 맞도록 처방된 운동치료 등으로 호전되나 이차적인 오십견, 특히 회전근개라는 어깨속의 힘줄(또는 근육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의 파열에 의한 이차적인 오십견은 상기와 같은 치료방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다. 증상은 비슷해도 치료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즉 사실은 비슷하지만 진실은 다르다고 할까?

요즈음 진실보다는 눈앞에 펼쳐지는 사실에만 너무 집착하여 일을 그르치고, 순간적인 편의성이나 경제적 이유(?)를 앞세워 전문가적인 의견 또는 견해가 무시되는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아쉽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가 관심의 초기단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동아병원 원장·2006년 11월 수상자〉

## 물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보존하자

게 되어 '물 쓰듯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인구증가와 급속한 공업화로 전세계 인구의 40%가 식수난과 농업·산업용수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중국 등은 물부족이 심각한 상태에서 앞으로 25년 후에는 세계 상당 국가들이 물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인당 1일 평균 물 사용량을 보면 스위스 402ℓ, 프랑스 211ℓ, 독일 196ℓ, 네덜란드 195ℓ, 일본 367ℓ, 한국 398ℓ이다.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 자료) 우리나라가 독일에 비해 202ℓ, 이웃 일본에 비해 31ℓ나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지않아 우리나라 역시 '물 부족 국가'에서 '물 기근 국가'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물에 대한 관심과 절약, 오염방지 대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물부족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가에 따른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들 수 있다.

심지어는 정화되지 않은 공장 폐수를 야간이나 장마철을 이용, 물대 냉탕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부도덕한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은 이 땅에서 밭을 불일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감시와 생산제품의 불매운동 전개로 기업윤리를 바로잡도록 해야 하겠다.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반드시 정화를 시켜 냉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농업용수로 재배한 저공해 농산물을 우리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물 절약과 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수질오염 방지에 솔선수범 할 때 물 부족으로부터 인간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한국농촌공사 전라남도본부장〉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 장애인·비장애인 공감대 형성 위해 서로 관심 가져야

장애인들을 위한 접자 명함은 단순히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끼리도 주고받음으로써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자판의 접자 표지도 아주 작은 배려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전화 기자판에 볼록 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알더라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접자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전화 단추를 정확히 누르는 데 기준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사회에는 계속해서 장애인이 남아 있게 된다.

장애인들을 위해 자신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더라도 휴대전화 숫자 '5'에 찍혀있는 볼록점 하나의 의미를 알고 생각해주기만 해도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인우·광주시 북구 청평동

수퍼마켓을 운영한지 10년이 넘는 동생 전화를 받으면 화가 난다. 근처에 단골도 많이 확보하고 인심도 얻으면서 잘하고 있었는데, 곧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슨 장사를 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했다.

동생 가게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생겨서 손님들을 "빨대"처럼 빨아들이면서 손님이 없다는 것이다. 동생 가게 뿐만 아니라 문구점이나 옷가게·과일가게, 심지어 약국까지 제대로 장사가 되는 집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는 대형 할인점들을 마구잡이로 허가해줘서는 안된다. 서민 경제의 문제를 감안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희·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 시설

## 수도권 '나홀로' 성장 지방낙후 주범이다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경제규모가 비대해지고 있으나 지방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전후방효과는 극히 낮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2010 발표한 '2003년 지역산업연계표'로 본 지역별 경제구조 및 지역간 산업연관관계'에 따르면 인구 47.6%가 몰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국가 경제 산출액 가운데 44.9%, 부가가치의 47.9%를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구와 부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4개 기업의 수도권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예다.

수도권 관리가 곧 지방낙후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선 국가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이 지방 및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홀로' 잘 먹고 잘 사는 비정상적 구조임을 입증한 것이다.

외국어고와 과학 등 특목고가 꽂혔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의 94.2%가 사교육을 시켰다. 특목고를 희망한 중학생의 87.6%도 학원수강이나 개인교습을 받았다.

사교육 양극화도 심각하다. 고소득층 일수록 과외나 전문학원의 인증율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읍·면지역 고교생의 EBS 시험 비중은 19.4%에 달했다. 재산에 이어 학력까지 대물림되는 현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편법 운영 특목고의 지정 해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교육 대체수단 제공, 학원 수강료 표시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대부분은 시행중이거나 논의됐던 것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사교육 천국'이 됐는지 한심하다. 교육부는 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한 만큼 공교육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 無等鼓

독서에 대한 옛사람들의 관심은 유별난 것 같다. 반딧불과 눈으로 불을 밝혀가며 책을 보았다는 형설자공(螢雪之功), 이웃집 벽을 훔쳐 새어 나오는 불빛으로 공부했다는 광현학벽(匡衡鑿壁) 등 옛사람들의 독서에 대한 유발남을 염볼 수 있는 고사는 수두룩하다. 가난으로 제대로 불을 밝힐 수 없었던 옛 선비들의 생활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독서를 중요시했던 선비들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기도 한다.

유발남은 독서의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이의는 '누워서 독서하는 독서대'